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1)

알아차린 무엇이 있다면 깨져 죽는다

학승이 물었다.
“나무눈이 트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냄새라도 맡은 즉시 머리가 깨진다.”
학승이 말했다.
“냄새를 맡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가함을 공부하는 자는 없어.”

문이다.
냄새도 없을 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무 것도 없는 한가함을 굳이 공부해서 무엇 할 것인가.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근본에 돌아간 사람이다. 부처의 마음바탕을 깔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알았으면 다만 일어나는 마음만 쉬어라.

‘12345’. 이것이 수량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12345’. 이것이 수량에 구속되지 않는 말이다. 수량이 크다, 작다, 모자란다, 남는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도인도 수에 대하여 ‘12345’ 하고 말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세계가 낮과 밤이 없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즉금(卽今)이 낮이고, 밤이야.”
학승이 말했다.
“즉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노승이 어찌 무엇이랴 하겠는가.”

근본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안다면 근본과 먼 것이다

나무눈이 트기 전은 천지가 갈라지기 전, 한 생 각 일어나기 전의 본래 자리를 말한다. 즉 만물이 나오기 이전 근본 자리는 어떠한가 묻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주 선사는 그것에 대해 어떤 낱새라도 알아차리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머리가 깨어져 죽어버린다고 말한다.

근본은 볼 수 없고, 냄새도 없으며, 느낌으로도 알 수 없다. 그것이 본질이다. 만일 약간이라도 알아차린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벌써 조작한 것이다. 근본과 10만8000리나 떨어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표현하면 곧 어긋난다.

問 什麼世界即無晝夜
師云 卽今是晝是夜
不問卽今
師云 爭奈老僧何

밤과 낮은 항상 즉금(현재 이 순간)에 처해있다. 지금 이 순간은 밤 아니면 낮이다. 현재가 낮이면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다. 현재가 밤이면 이 순간이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다. 사람은 항상 낮 아니면 밤의 현재에 처해있다. 낮도 현재이고 밤도 현재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즉금이 밤이고 낮이라고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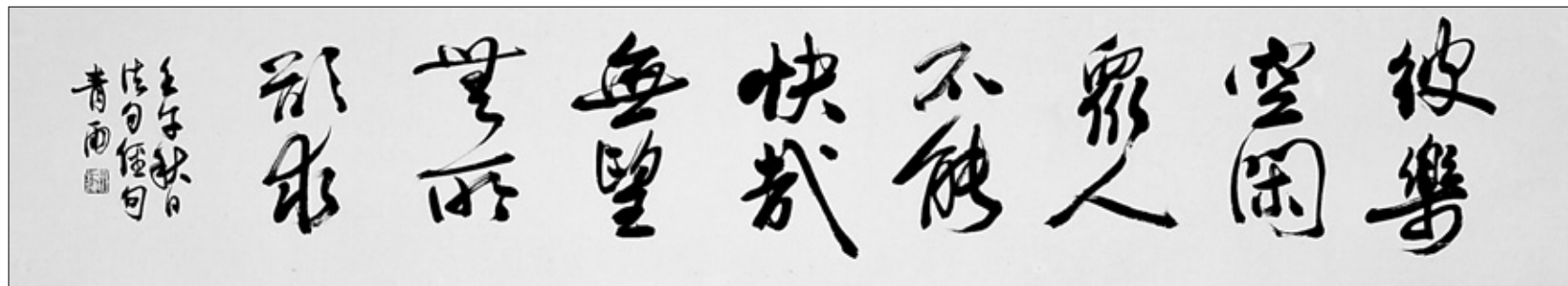
전혀 감해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가 평화로운 것이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도 역시 틀리다. 이 역시 본질에다 ‘알지 못한다는 상’을 세운 것이기 때

問 如何數量
師云 一二三四五
云 數量不拘底事如何
師云 一二三四五

낮도 없고 밤도 없는 세계는 현재의 반대 세계이다. 알겠는가? 이외에 더 이상 부연하지 않았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㉑ 법구경



청법입욕무무패불중공피
우구오구소삼재능인한락
경주
구일

바라는 바 구하는 바 없도다

彼: 저 괴
閑: 한가할 한
快: 쾌활 쾌
哉: 어조사 재
望: 바람 망

彼樂空閑 衆人不能 快哉無望 無所欲求(회락공한 중인불능 쾌재무망 무소욕구)
그는 공한을 즐기나 보통사람은 능히 그러하지 못하네. 쾌재로다. 바라는 바도 없고 구하는 바도 없다. (위없는 즐거움을 즐기도다)

(서예가·동미미술상 수상 작가)



김호구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바른정법 . 바른인연 Ⅲ

아직도 믿을 불되고, 화두 불되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쯤 세상에 몸을 나무실겠습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여섯 도적)을 가시발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서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담하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 양 비추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남굴당을 짓고, 부처님 몸속 범당이나, 00신통도당이나, 00영험도당이나, 00발바위 도당이나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에서부터 닳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당이라니..... 또, 범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 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범당안과 합은 '범'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범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담 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습비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십시오. **어떻게**지..... 그 배움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사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일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 앉아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뭣고? (이 무엇이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즘은 어느 개그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자면 '그럼, 소는 누가 기우냐?'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렀다가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리니까? 아니면, 보입니까?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 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던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발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이루면서 주시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이, 법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통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앉아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 . 법 . 승 . 정법 . 실천도량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등

선어록 해제 41 한국선과 선어록 12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尚語錄)

자각과 개혁을 위해 보살행을

고려 후기에 활약한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19세 때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입찰해 수행을 하고 38세 때 크게 깨쳤다. 46세 때 원나라에 들어가 임제종 제19세인 석유청공(石屋淸珩: 1272~1352)을 참문하고 인가를 받아 중국의 임제종맥을 이었다. 48세 때 귀국해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으나 신돈(辛頓)과 불화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에 신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계통과 태고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과의 세력대결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세력과 정치를 배경으로 한 세력과의 대결이기도 했다.

시자인 설서(雪樵)는 <태고화상어록> 2권을 편찬했다. 그 구성은 한국불교전서 제6권에 수록된 판본에 의하면 1385년 7월에 쓴 이색(李穡)의 태고화상어록서, 1387년 7월 27일에 쓴 송인(崇仁)의 태고어록서, 목록, 권상, 권하, 부록 등으로 나뉘어 있다. 내용은 상당, 시중, 법어, 가, 송, 명, 음, 계송과 찬과 발, 그리고 부록에 수록된 석유화상의 글[石屋和尚書], 석유화상에 올리는 글[上石屋和尚書], 석유화상의 답서[石屋和尚答書], 대도의 제산의 장로들이 조정에 아뢰어 개당할 것을 청하는 글[大都諸山長老告朝廷請開堂疏] 등이다.

태고어록에 드러난 가르침은 자성미타의 염불선을 가르치는가 하면, 잡화삼매의 화엄선과 호법교화와 보은우세를 위한 원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것이 태고보우의 진면목이고 가치이며 선사상에 공헌한 의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조사선의 가풍을 중심으로 한 간화선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를 내세워서 이를 위해서 오매일어하고 성성력력하게 의단을 지닐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화선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머무르지 않고 온갖 근기를 상대로 갖가지 수행법을 제시했다. 특히 염불과 정도에 대해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염불의 중심은 아미타불이었다. 이 말은 본래 생사가 없는 무량수(無量壽)이고 깨침의 양태임을 나타낸 말로서 사람 모두에게 안락자재한 본성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무량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미타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터득한 자가 불(佛)이고 그것에 대해 설한 것이 교(教)이므로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은 오직 자심의 청정을 가رس하는 것이라 했다. 이로써 내 아미타불을 염하는 마음이 화두를 참구할 때의 염불불매(念念不昧)이고 상상불매(常常不昧)였다.

태고 스님이 설법전에 들어와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말했다. '이 한 번의 소리는 부처와 조사를 살아버리는 큰 용광로이고 풀우며, 삶과 죽음을 단련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나 마땅히 이 주장자 앞에 오는 자는 간담이 싸늘하고 혼이 나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노승에게 인간적인 면목까지 없다고는 여기지 말라.' 다시 한 번 주장자를 내리치고 말했다. '이 한 번의 소리에 백 천의 제불도 일시에 얼음이 녹고 기왓장이 무너져내리듯 기도 퍼지 못할 것이다.' 다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쳤다가 다시 주장자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바로 이 주장자여, 고래가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리니 산호가지가 줄줄이 드러났구나.'

참으로 주장자 한 번에 온갖 번뇌와 사회의 구조적인 비합리성을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그의 선공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주체로서 우리들이 부여받은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 일체의 현상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나 은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두루 통하며, 가운데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으면서 시방세계에 고루 사무친다.

그 본래성은 정갈하고 청정해 온갖 덕성을 머금었고, 고요하고 편안해 모든 상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은 치켜들면 하늘처럼 높아지고 땅처럼 두터워지며, 내려놓으면 바다같이 아늑하고 강물처럼 맑다. 이 몸과 마음은 부처와 조사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헤아리지 못한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다. 전생에 신라를 행할 때에 전단원에 가서 그림자 없는 나무아래서 잠으려 했을 경우에도 실마리도 없었고 맥도 추지 못했다. 그래서 만길 벼랑에 이르러서 온 몸을 통째로 내던져 완전히 죽었다가 휴연히 소생하여 가볍게 날아오른다.

이처럼 태고보우는 그 주인공의 제일의제(第一義諦)야말로 곧 석가모니의 이후와 미륵의 이전에 현성해 있는 정법안장이고 열반묘심이라고 말한다. 그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몸이며 주장자이고 가사이며 자성미타이다. 그래서 마치 천상세계의 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향해 있고, 인간세계의 물들이 모두 동쪽바다로 흘러가고, 필경에 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구름은 필시 산을 찾아 돌아가듯이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이 자신과 일체중생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이 때로는 범천왕의 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석천왕의 몸이 되기도 하여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태고보우가 평생 동안 자신의 자각과 사회의 개혁을 향한 제 일구였다.

조사선을 중심으로 간화선 수행에 중점 염불과 정토도 강조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조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 북 익 산 063-854-1060
지 리 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